

翻譯은
研究業績이

못 되는가

方

坤
(慶熙大佛文學科)

I

人類文化의 發展에는 그 나뉠대로의 自生的 에너지가 작용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파나 보급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수단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翻譯'이다. 이 행위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존속될 행위이며, 이 행위 없이 오늘날의 인류의 번영은 있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여기서 세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는 그 민족의 상형문자를 해독하고, 그것을 번역해야 했고, 그 작업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아니 아주 가까운 시대라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의 문화도 우리에게서 '번역'이라는 수단이 박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인류는 도저히 그것을 접할 수 없었을 것이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도 천여 년 전의 몇몇 村夫들의 한낱 백일몽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뿐이라. 佛陀의 思想도, 저 그리스도의 사랑도, 老壯이나 孔孟의 심오한 지해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었겠는가. 이처럼 '번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뛰어난 능력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며, 가장 진지한 행위라 하겠지만, 그 행위—翻譯이라는 作業—란 항상 고단하고 고독한 행위이다.

모든 학문은 '번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聖아우구스티누스라 해도 바이블을 안 읽었을 리 없고 셰익스피어나 라센스가 소포클레스의 悲劇을 안 읽었을 리 없으며, 싸르트르가 니이체의 이론을 안 읽었을 리 없다. 즉 모든 학문이나 학설이 '번역'이라는 토양에서 싹이 튼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번역'이란 學問의 또는 學說의 발생 또는 발전의 '수단', 다시 말해서 '小道具'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학문들이 그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당당히 학문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인간 생활이 다양해지고, 과학의 발달은 그러한 추세를 가져온 것이다. 술 담그는 일도 버젓이 醱造學으로 발전하고, 된장 담그는 일, 요리 만드는 법도 학문으로서(가정학이라 해서) 체계화되고, 체조하는 일도 이제는 체육학, 더 나아가서 체육과학으로까지 學問化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해 없기 바란다.

'번역'도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화되고 있다. 파리대학에 번역전공 학과가 생긴 지 오래이고, 기타의 구미 각국에서도 대학에 翻譯學이라는 강좌를 설치한 곳이 많

다. 물론 ‘번역’이라는 직업에 종사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거기서는 당연히 번역에 관한 이론이나 기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공부방법도 철저한 敎養을 쌓도록 훈련한다.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치 精密工學의 설계자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고도의 학문이 발달된 상황에서 모든 학문의 정확한 번역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구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번역전공’ 과목이나 학과를 開設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것이 필연적인 추세여서, 필자는 그 점에 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

II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새삼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序論의인 부분에서 언급한 번역의 중요성이라든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개설 따위가 아니다.

학계의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가 (즉 각급 학교의 교사나 교수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의 學術研究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진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서적을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했을 때에 그만한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왜 새삼 이러한 제언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선 1945년 이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번역’이라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첫째로 植民地下에서, 대개의 경우는 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학문을 배우고, 文藝物을 읽어야 했다. 그 불행했던 기간, 우리나라의 학자나 지식인이 외래의 學術書籍이나 문학서적을 번역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했고, 대개의 경우는 일본인의 손으로 된 일어로 번역된 外來書籍을 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양상은 급변했다. 이제는 우리의 말과 글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게 되었다. 刊行되는 서적들 중에서 譯書가 그 主宗을 이루었다. 良書와 惡書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6·25동란을 겪고나서도 당분간 계속된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가서 점차 정비기에 들어간다. 번역서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서가 아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국이 해방된 후, 양식 있는 학자나 교수들의 손으로 번역된 서적이 우리나라의 학문이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는가를 따져 볼 때, 그 공로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 공헌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문을 체계화시켰고, 新進學者들을 길러냈던 것이다.

이러한 공헌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학술적인 貴重 서적의 번역이라는 무거운 짐자기를 지어야 할 교수들에게,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매우 서운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문교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시달하고 있는 「大學教員 任用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보면, 연구실적물의 범위에서 연구논문, 즉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출판된 저서거나, 학회지나 논문집이나 定期刊行物에 게재된 것과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 전시 입선 등을 말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 규정을 보면 강의용 저서나 중·고교 교과서는 인정치 않되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편찬한 一種 教科書는 제외함(즉 인정함)으로 되어 있고, 예·체능계 전공은 종(학)장이 인정하는 실적 조서로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서 審査規程이 있고, 예외 기준 또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일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專任教員을 임용하고, 대체로 그 기준에 준하여 이미 임용된 전임교원의 승진 등에 대한 규정을 자체의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각 대학의 學則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임용된 전임교원의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인정기준에 위의 ‘전임교원 임용기준’과 별 차이 없이 ‘번역도서’의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다. 몇몇 대학의 敎務行政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의 두 갈래의 실시 현황을 볼 수 있었다.

- ① 연구실적 환산에 있어서, 명문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번역도서’ 역시 중요한 研究活動이라는 인식하에 연구 또는 편찬서적(간행된)에 부여되는 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表 1〉 연구실적 환산율표

| 분야별 | 실 | 적 | 인정 환산 율 (%) |
|-----------------------------------|----------------------------------|-----|----------------|
| 연구실적 |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 100 |
| |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70 |
| |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50 |
| | 4. 4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 30 |
| | 5. 번역도서 (단독) | | 50 |
| | 6. 번역도서 (2인) | | 30 |
| | 7. 증보도서 | | 50 |
| | 8. 석사학위 취득논문 | | 100 |
| | 9. 박사학위 취득논문 | | 200 |
| 문학작품 | 1. 단편평론, 희곡 1편, | | 70 |
| | 2. 연재소설 1편 | | 40 |
| | 3. 시, 수필, 시조 1편 | | 30 |
| 미술분야 | 1. 국제전, 국전, 상공전 | | 100 |
| | 1) 특선 1회 | | 100 |
| | 2) 입선 2회 | | 100 |
| | 2. 공인된 개인전 (2회) | | 100 |
| | 3. 공인된 단체전 | | 100 |
| | 1) 입선 4회 | | 100 |
| | 2) 특선 2회 | | 100 |
| 4. 추천작가 이상 자격으로서 공인된 단체전 출품 2회 | | 100 | |
| 5. 국제전 심사위원 | | 100 | |
| 6. 국전 및 상공전 심사위원 2회 | | 100 | |
| 7. 미술관계 훈장 1회 | | 200 | |
| 음악분야 | 1.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발표회 1회 | | 100 |
| | 2.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발표 2회 | | 100 |
| | 3. 인정된 발표회의 중주 및 반 주 2회 | | 100 |
| | 4.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4회 | | 100 |
| | 5. 음악관계 훈장 | | 200 |
| 무 용 | 1. 장막 | | 70 |
| | 2. 단막 | | 40 |
| | 3. 소품 | | 20 |
| 체 육 | 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 1회 | | 100 |
| | 2. 올림픽 경기출전 1회 | | 100 |
| | 3. 전국대회 입상 2회 | | 100 |
| | 4.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 | 100 |
| | 5. 체육관계 훈장 1회 | | 100 |
| | 6.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 | 100 |

② 전임교원 임용시의 기준으로 승진규정에도

‘번역도서’는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두 갈래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전국 대학 중
에서 몇몇 대학만이, 교수들의 다각적인 연구활
동을 감안해서 연구실적 환산에 번역도서의 규
정을 明文化하고 있었다. 그러한 대학의 규정은
비단 번역도서뿐만 아니고, 전임교원이 문과계
열인 경우 創作行爲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까지
도 해 놓고 있다. 앞서 예거한 문교부의 규정 중
에서 예·체능계에 대한 규정과 예외 규정도 보
다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번역도서의 인정에 있어, 單獨 譯書일 경우 점
수의 50%, 共譯일 경우 30%로 되어 있는 점
은,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문제도 연구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그 〈연구실
적 환산율표〉를 예시하면 좌측과 같다.

좌측의 〈환산율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교
수들의 연구활동을 자극하고, 권장하기 위한 적
극적인 자세가 엿보인다. 그러나 學術論文 1편
의 평점을 100%로 할 때, 평형의 원칙에서 보
면, 다소 불균형을 이룬 배점이 있는 인상을 준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독자적인 學說을 담
은 1급 교과서 (중·고교)는 학술논문과 동등하
다든가, 학술적인 저서는 무조건 단점이라든가,
共同研究는 평점 70%라든가 할 때, 그 절대적
평가의 근거가 문제시된다. 어떤 共同研究는 단
독으로 펴낸 저서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석사논문은 (강변을 하자면) 어떤 박
사논문보다 우수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체로 보편적인 평가기준을
明文으로 세워 놓자니, 그런 外形的인 기준을
일단 참고로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다만 학술적인 또는 예술적인 번역작품에 있어
서도 똑같은 論據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
이다. 예컨대 어떤 ‘경제학’에 관한 저서가 받
드시 어떤 경제학에 관한 번역서보다 두 배나
더 우리의 학계나 교육에 공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교수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면서, 왜
專門書籍을 번역하여 펴내겠는가. 나름대로 학
문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구를 보다 깊게 하고,
나가서는 학계와 專門學徒들에게 공헌하기 위해

서이다. 잡다한 독창적인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훌륭한 신학설을 발표한 연구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가치 있는 外판(논문이나 학술서)를 번역하여 학문적인 공헌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당히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번역'은 2차적 저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은 '복사'가 아니다. 또한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라고도 한다. 똑같은 뜻이다. 적어도 '번역'은 번역자의 '翻譯技術'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原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이며, 학자의 학설, 또는 논문에서, 학자적 양심이 있어야 하듯이, 번역자는 번역자로서의 전문지식 이외에도 번역자로서의 '良心' '倫理觀'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原文'에 충실하고도 그 사상 및 형식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해당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또한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번역서'에는 2중, 3중의 노고가 깃들여 있다.

아직까지도 翻譯은 어느 정도의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심한 일이다. 모터 사이클을 탈 줄 아니, 여객기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이다.

III

끝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각 분야의 專門 翻譯家(직업적인)가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술적인 모든 분야에서 한시도 중단할 수 없고 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 '번역'이라는 고독하고 험한 일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가 중심) 중에서도 필요한 언어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상당되는 대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 번역가가 존재하는 구미 선진국에서도, 대학의 교단에 선 분들이 專攻書籍을 번역·출판하는 예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 그 서적은 그 교수 자신의 연구논문과 똑같은 권위가

있고, 똑같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우리도 이제는 知的 勞動에 대한 공평한 평가와 대우에 보다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한다. 만약 부당한 평가나 대접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나라의 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되는 바 크다. 만약 능력 있는 교수들이 '研究業績'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서, 또는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 낮음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서 '理論書'나 '思想書'의 번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면—이미 그런 징후가 없지 않다—우리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거나 없을까. 그러한 현상은 비단 學界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외국 문학 교수들이 점점 문학 작품의 번역을 멀리하게 된다면, 극소수의 전문 번역가의 힘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청소년의 知的 糧食인 교양서적들은 질적으로 조악해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단 조악한 역서(학술, 사회, 교양……등 모든 면에서)가 범람하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는 또한 장구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惡貨는 良貨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쉽사리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종전보다 더 활발한 번역활동을 당부하고 싶다.

그러자면,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다는 낡은 대우가 있어야 할 터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문학자들이 재직하는 대학에서 '研究業績'에서 배제한다든가, 評價의 비율에 공평을 결한데서야 어디 보다 풍요한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다시 한번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文化의 꽃의 滿開를 바라는 지식인에게 제언한다. '번역'은 현실점에서 우리의 학문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海外의 學問과 智慧를 빼놓지 않고 흡수하는 데, 유일하고도 정통적인 중요 과제인 만큼, 당장에 沮喪要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부터 과감히 수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빈다.*